

에스노그라피로 동시대 미술 현장 연구하기

박유준

나는 석사논문에서 2012 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 *Garden of Learning*》을 질적 연구의 방법인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를 활용해 분석했다.¹⁾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 “왜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미술) 논문을 쓰니?” 사실 나 역시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다. 그렇게 학위를 취득한 지 6개월이 흘렀고, 데뷔를 위한 저널 페이퍼 게재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나는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논문 쓰기의 과정을 되짚어보려 한다.

1. 질적 연구로의 초대

흔히 연구의 방법론적 분류를 ‘양적(정량적)’ 연구와 ‘질적(정성적)’ 연구로 나누는데, 예술경영 연구는 두 가지 모두를 통섭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스타일에 따라 개별 연구의 방법론 구사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예술경영 혹은 문화예술경영은 “‘문화’라는 복잡한 용어에 ‘경영’이라는 상이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통합된 간학문(interdisciplinary)적”인 학제이기 때문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연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용자/소비자 연구 혹은 경제 효과 측정과 같은 연구는 “경영학에서 쓰는 정량적 연구방법을 그대로 채택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보편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이 자명하다.³⁾ 예술경영 담론의 시작이 예술에 대한 경제·경영적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양화(quantification) 연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상당하다.

우리가 ‘과학’ 혹은 ‘연구’라고 인지하는 영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숫자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는 기호로 인정받는 속에 [...] ‘이론 → 가설 → 관찰 → 경험적 일반화 → (다시) 가설’로 구성되는 회로”를 생산해왔다.⁴⁾ 석사 때 들었던 연구방법론 수업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가설 수립과 검증의 방법을 익히는 것이 주를 이뤘다. 그때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북함을 참을 수 없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이항 대립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 확인만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는 없지 않은가? 특히 예술

1) 에스노그라피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학제에 따라 민속지학 혹은 문화기술지로 나뉜다. 그러나 민속지학으로의 번역은 민속학(Folklore)과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문화기술지로 번역할 때는 같은 뜻을 가진 기술(記述)과 지(誌)라는 용어가 반복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비판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별도의 번역어 대신 에스노그라피라는 원어 표현을 음차하여 사용한다.

2) 김인설 (2014). 문화예술경영연구에서 정성적 연구의 당위성과 향후방향. <2014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pp. 39-47, *esp.* p. 41.

3) *ibid.*, p. 44.

4) 조항제 (2015). 질적 연구의 방법론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 한국언론정보학회 (편),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pp. 15-36). 서울: 컬처룩, *esp.* p. 21.

을 사회과학적인 시선에서 분석한다면 로텐버그와 파인(Rothenberg & Fine, 2008)이 지적하듯 예술과 예술계(art world) 고유의 맥락을 깊숙이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⁵⁾ 이때 숫자 기반의 검증만으로는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 예술 작업물의 생산 방식, 예술계 내부의 복잡한 정치, 예술계 외부 공동체와의 조응과 같은 내용은 질적 연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2. 에스노그래피 연구의 과정

처음 《배움의 정원》 연구를 시작했던 것은 석사 2학기 때 들었던 수업에서였다. 전시에서 드러나는 관객 참여(Audience Participation)의 과정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 등으로 표현되는 1990년대 이후의 미술 담론을 분석하고자 했다. 예술경영을 “합리적이고 계량적인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예술을 육성하고 확산시키는 제반 방법론”⁶⁾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접하면서, 합리적 경영 방식의 모색이나 경제성 판단과 같은 기존의 연구 경향과는 다른 형태의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사전 연구(pilot study)를 수행했던 셈이다. 한 학기 동안 글을 쓰면서 통계를 통해 관객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관객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단단해졌다. 그것은 기계적 중립성을 지향하는 양적 연구에 대한 거부스러움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프로포절을 통과한 석사 3학기 말 무렵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이 분야 연구에서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결과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나마 예술 교육이나 치료를 통한 학생/내담자의 변화 혹은 교사/치료사의 자기 고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간신히 발견한 자료가 김문성(2019)의 연구로, 그는 국립미술관 도슨트의 활동 전략과 그들의 예술계 내부 위치를 장기간에 걸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풀어냄으로써 “미술관 도슨트의 활동을 더욱 생생하게 밝히고자” 했다.⁷⁾ 해외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긴 했는데, 영국에는 뮤지엄 에스노그래퍼 그룹(Museum Ethnographers Group, MEG)이 〈뮤지엄 에스노그래피(Journal of Museum Ethnography)〉(1989-2016)라는 저널을 발간하는 등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연구가 일정 부분 전개된 바 있다.⁸⁾

5) Rothenberg, J. & Fine, G. A. (2008). Art worlds and their ethnographers. *Ethnologie française*, 38(1), pp. 31-37.

6) 심보선, 강윤주, 전수환 (2010). 문화사회학적 견지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경영의 시론적 고찰: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8권, pp. 39-82, *esp.* p. 47.

7) 김문성 (2019). 〈미술관 도슨트의 역할갈등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p. 16-17.

8) 다만 MEG의 저널은 2016년을 끝으로 더 이상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7월 기준 그룹의 홈페이지(<http://www.museumethnographersgroup.org.uk>)에서도 추가적인 활동을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질적인 자료의 상대적, 주관적 특성과 이로 인하여 과학적 분석에 부적합하다는” 지극히 실증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한 비판도 나를 위축시키는 요소였다.⁹⁾ 이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에 쉬이 적용할 수 없다는 일반화의 어려움과 연결된다. 하지만 질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곱씹어보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통계적 일반화’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분석적 일반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 즉, 연구를 통해 얻어낸 결과를 “다른 사례가 아닌 ‘이론’에 일반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이다.¹⁰⁾ 따라서 나는 현장을 둘러싼 미시적 맥락을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와 움직임들 통해 파악하고, 이를 변화하는 예술 개념(관객, 전시, 큐레이터 담론의 전환)과 맞물려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하는 형태로 글쓰기의 방향을 설정했다.¹¹⁾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연구가 인정 투쟁(Recognition Struggle) 혹은 자기-정당화의 언설로 치부되는 것을 막는 과정이었다. 어떤 연구든 연구 대상의 의의와 한계를 고르게 밝힘으로써 학문적, 실용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데, 내 경우엔 반성적 회고보다 상찬에 가깝다는 비판을 방어해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현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과 잘 밀착하고 있는지를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다.¹²⁾ 또한, 연구 대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보다 타당한 형태로 드러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확인(member checking)이나 동료 검토(peer review)의 방법도 활용하며 마지막까지 글을 다듬어 나갔다.¹³⁾

3. 에스노그래피의 가능성

에스노그래피는 현장에서의 관찰을 통해 얻어낸 ‘기록’과 연구자의 주관적인 ‘기억’을 사이를 오가며 만들어진다. 8년 전,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부터 블로그, 페이스북, 일기장에 적었던 메모를 연구 과정을 거치며 닦고 닦도록 봤다. 그때마다 열아홉 살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고, 연구의 원천이자 좋은 스승이었다. 동시에 지금의 내

9) 나미수 (2015). 미디어 수용자 연구하기. 한국언론정보학회 (편),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pp. 263-300). 서울: 컬처룩 esp. p. 297.

10) 신명호 (2011).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 사회계층 간 학력자본의 격차와 양육 관행>. 파주: 한울엠플러스, p. 217.

11)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CA: Sage.

12) 김영찬(2015)은 자신의 글에서 질적 연구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성찰성(reflexivity)을 강조하며 “연구 과정의 각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그리고 연구자 스스로에 대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찬 (2015). 질적 연구의 특성: 민속지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편),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pp. 37-73). 서울: 컬처룩, esp. p. 64. 를 참조.

13) Glesne, C. (2016).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5th ed.). 안혜준 (역) (2017). <질적 연구자 되기>.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pp. 295-296.

가 좀 더 단단하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는 해머슬리와 앳킨슨(Hammersley & Atkinson, 2007)이 말한 것처럼 에스노그래피 연구의 과정에서 최고의 연구 도구가 바로 연구자 자신임을 보여준다.¹⁴⁾ 연구의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더 나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끝없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일상 속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에스노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이다.

한편, 양적 연구가 ‘연구 대상과의 거리 두기’를 미덕으로 여기지만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관계는 상호호혜적이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열한 명의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 일정을 잡고,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든 순간에서 라포(rapport)와 친밀감(intimacy), 그리고 신뢰감(trustworthiness)을 주고받아야 했다.¹⁵⁾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만의 언어가 아닌 현지에서 맺었던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산해낸 협업에 가깝다.”¹⁶⁾ 이는 에스노그래피가 “사람들(ethno-)의 삶에 대해 질문하고, 쓰는(graphy)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든다.¹⁷⁾ 관념이나 상상에만 그쳤던 무언가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연구자의 관점과 합일시키는 과정을 통해 고유의 가치를 생산해내는 일. 이것이 에스노그래피가 지닌 두 번째 가능성이다.

나아가 연구의 대상이 미술 전시라는 점에서 에스노그래피는 전통적 미술(사) 연구 방법과는 다른 결(texture)을 가진 대안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미술(사) 연구는 현장의 소리를 놓칠 때가 많다. 고전적인 미술(사) 연구의 과정은 오래된 텍스트와 그 텍스트를 바탕에 둔 이차 문헌에 기초한다. 이때 연구자는 도상과 텍스트를 끊임없이 쳐다보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사람들에게—실은 연구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 램버트-비티(Lambert-Betty)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며, 동시대 미술에는 동시대 미술사가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미술사는 늘 개막식을 놓친다. 비엔날레가 끝난 다음 날이나 돼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술사학자들이 논문을 연구하고, 쓰고, 동료끼리 평가하고, 학술지에 출간할 즈음이면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말해서 그와 관련된 ‘동시대’는 이미 끝나버린다.¹⁸⁾

14) Atkinson, P. & Hammersley, M. (2007). *Ethnography: Principles in practice*. Routledge: New York.

15) 김영찬. *op. cit.*, p. 58.

16) 오은정 (2020). 여성연구자, 삶을 잇다: 과정으로서의 에스노그래피. <한국여성학>, 36권 2호, pp. 195-203, *esp.* p. 201.

17) *ibid.*, p. 196.

18) Lambert-Beatty, C. (2013). "The Academic Condition of Contemporary Art," In Dumbadze, A. & Hudson, S. (Eds), *Contemporary Art: 1989 to the present*. (pp. 457-466). 서울시립미술관 (역) (2016). <라운드 테이블: 1989년 이후 동시대 미술 현장을 이야기하다> (pp. 571-582). 서울: 예경, *esp.* p. 578.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램버트-비티의 발언은 미술(사) 연구, 특히 동시대 미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때’, ‘적절한 장소’에 갔는지를 묻는다. 이는 동시대 미술(사) 연구자가 “미술이 발생했을 때의 감각을 전달함으로써 미술이 일어난 장소와 공간, 처음 봤을 때의 아우라, 최초의 특성들, 현장의 긴장감 등을 환기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¹⁹⁾ 그리하여 나는 에스노그래피가 동시대 미술(사) 연구자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에스노그래피의 시작은 인류학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초기 에스노그래피 연구자는 “다른 사회와 문화의 풍속과 습관을 연구하기 위해 이질적인 환경 속으로 들어갔다.”²⁰⁾ 하지만 오늘날 에스노그래피는 “경험하지 못했던 타자의 특성을 관찰”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의 현장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²¹⁾ 바로 이 지점에서 에스노그래피는 ‘지금’, ‘여기’의 곳곳에서 출몰하는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에스노그래피의 또 다른 가능성이다.

추신.

인용을 위한 서지정보를 찾고자 구글 스칼라에 접속하면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의 격언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를 만난다. 이 문장에서 에스노그래피 연구자의 일을 생각해본다. 에스노그래피는 “별개의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연마하도록 하는 데 달려 있다.”²²⁾ 적지 않은 질적 연구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연구를 수행한다. 그것은 양적 연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감정, 상상력, 직관 등과 같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질적 연구자는 연구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혹은 내면의 성장 등을 경험한다. 나 역시 지난 8년 동안 쌓은 기억과 기록 사이를 오가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하고 때로는 멀찍이서 바라보며 묵묵히 글을 써 내려갔고, 그 모든 과정은 나를 거인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게 했다.

19) Smith, T. (2009). *What Is Contemporary A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bid.*, p. 577. 에서 재인용.

20) 김영찬. *op. cit.*, p. 42.

21) *ibid.*

22) Glesne, Corrine. *ibid.*, p. 379.